

第26回日韓・韓日フォーラム

議長声明

2018年8月22日

(於、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東京)

第26回日韓フォーラムは2018年8月20日から22日にかけて、東京の「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東京」で開催された。韓国側の26名、日本側の27名、総計53名が参加して両国関係の安定的で持続的な発展のために真剣な議論を行った。本年は、小渕・金大中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20周年であり、日韓の相互訪問が1000万名になると予想される歴史的な年に当たっており、日韓フォーラムの意義が倍加した。

2018年は、日韓両国が共に多様かつ転換期的な課題に直面しており、その中で、両国協力を高めるための率直で活発な議論が行なわれた。現在進行中の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平和体制構築プロセスの成否は、日韓両国の安保と平和のみならず、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を左右するので、日韓の外交安保協力は切実なものとなっている。また、アメリカの自国優先主義と深化する主要国間の貿易摩擦で、日韓両国の発展を牽引してきた国際自由貿易秩序が揺らいでおり、日本と韓国の共同対応が常にも増して、切実な課題となっている。また、日韓両国ともに、少子化・高齢化という構造的な転換期を迎えて、成長動力の再構築、社会福祉と健全財政の均衡、世代間の負担の公正化など、多様な社会・経済的な問題を共有していることが、本年のフォーラムで討議された。

日韓フォーラムの参加者は、こうした転換期の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日韓両国が国際自由主義と民主主義及び市場経済を基盤にしながら、平和と持続的な成長という「共通の価値」を共有する成熟した戦略的パートナーとして、未来志向的な協力関係を強化していくべきであるとの認識を共にした。こうした認識の下で、日韓フォーラムは、以下を提案する。

1. 日本と韓国は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及び朝鮮半島平和体制の構築が両国のみならず、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に不可欠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それに向けて足を止めることなく前進するよう相互協力する。
 - 1) 2018年になり、朝鮮半島をめぐる葛藤と戦争の危機を乗り越え、交渉を通じた平和の雰囲気造成されたことを歓迎し、それを続けるための関係国間の国際協調を強化していく。

2) 北朝鮮が完全な非核化のための核プログラムの申告と検証など、実質的に行動することを期待する。同時に、北朝鮮が非核化と開放の道を歩むよう、平和と協力の雰囲気醸成することに協力する。

3) 北朝鮮の非核化、中・短距離ミサイル、日本人拉致被害者問題などの懸案を解決するために、日本と北朝鮮が直接対話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日韓両国は非核化のみならず、多様な懸案を全体的に解決されるよう対北朝鮮政策協力を強化して行く。

2. 日韓両国は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20周年を迎え、過去を直視し未来志向的な協力関係を深化していくという共同宣言の意味を反芻し、それを具体的な行動で実践して行くべきである。

1) 日韓両国は年内の早いうちに日韓首脳会談を開催し、懸案について協力の方途を議論し、信頼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日韓両国は歴史問題が国内政治で争点化する場合、その解決が一層混乱になるという現実を認識しながら、冷静で現実的な対応を模索すべきである。

3) 両国国民の相互理解と交流が持続可能な日韓関係の構築に重要であるという認識の下で、政府間対話、政治家とジャーナリスト交流、市民社会交流、青少年交流など、多層な交流深化の努力をつづけるべきである。

4) 日韓両国は北朝鮮の非核化と中国の大国化など、急変する東アジアの国際環境に対応するため、東アジア安全保障をいかに構築するかをめぐる広範な議論を行ない協力していく。

3. 日韓両国は少子化・高齢化、労働、環境、災害など、共通の社会・経済的な課題に直面している。この課題こそ、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を構築する土台でもある。

1) 日韓両国ともに、少子化・高齢化及び第4次産業革命という構造的な変化の下で、社会保障の改革、労働市場の改編、格差社会と世代葛藤の緩和などの課題をいかに解決し、いかなる「持続可能な社会」を構築して行くのかを模索している。これらをめぐる日韓共同ビジョンを探すための政策対話を推進する。

2) 日韓両国は共通の社会経済問題をめぐって、両国の研究者と研究機関による共同研究及び共同の政策開発などを進め、両国の経験を共有し活用するシステムを構築する。

3) 日韓の若者の労働市場の違いを活用し、若者人材の国境を越える自由な就職ができるように、相手国の言語の学習と長期滞在が可能となる制度と環境を整備し、積極的に支援する。

4. 開放経済と自由貿易に依存してきた日韓両国は、最近、高まる新保護主義と貿易摩擦に共同対応し、自由貿易秩序の維持のための日韓協力を強化していくべきである。

1) 日韓両国は多様な国際舞台で共同イニシアティブをとり、新保護主義に断固反対し、国際自由貿易秩序の維持と発展を促す。

2) 韓国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自由貿易秩序を強化するためにCPTPPへの加入を積極的に検討し、日韓両国はRCEP、日韓FTA、日中韓FTAの早期締結のために協力する。

3) 日韓両国は貿易及びサービス交易のみならず、文化産業とエネルギー産業と物流での協力、グローバル市場への日韓企業の共同進出など、多様な分野での協力関係を強化して行く。

日韓フォーラム議長 五百旗頭 真

韓日フォーラム議長 柳 明桓

제 26회 한일·일한포럼

의장성명

2018년 8월 22일

(호텔 뉴오타니 도쿄)

제 26회 한일포럼이 2018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의 『호텔 뉴오타니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 26명, 일본측 27명, 총 53명이 참가하여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한일포럼은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공동선언 20주년이자 한일 상호방문 1000만 명이 예상되는 역사적 해에 개최되어, 포럼개최의 의미가 배가되었다.

2018년은 한일 양국이 모두 다양한 전환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양국 협력분위기의 고양을 위해 참석자들간에 솔직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프로세스의 성공여부는 한일 양국의 안보 및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좌우할 수 있어 외교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심화되는 주요국간 무역갈등으로 한일 양국의 발전을 견인했던 국제 자유무역질서가 동요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나아가 한일 양국 공히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 하에 성장동력의 재구축, 사회복지와 건전재정의 균형, 세대간 부담의 공정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한일포럼 참가자들은 이러한 양국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국제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일포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5.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향한 발걸음이 중단없이 전진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1) 2018년에 들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 협상을 통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관계국간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간다.

2)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검증 등 북한의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동시에 한일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력한다.

3) 북한의 비핵화, 중단거리 미사일, 납치피해자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비핵화는 물론 다양한 현안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북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6. 한일 양국은 한일 파트너십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간다는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해 가야한다.

1) 한일 양국은 연내 빠른 시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일 간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2)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가 국내정치 쟁점화될 경우 그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3)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교류가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구축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고위급 대화, 정치인 및 언론인 교류, 시민사회 교류, 청소년 교류 등 다차원적인 교류를 심화시킨다.

4) 한일 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대국화 등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하며 협력해 간다.

7. 한일 양국은 노동, 환경, 재해,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된 사회경제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제들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이며 협력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1) 한일 양국은 공히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변동 하에, 사회보장 개혁, 노동시장 개편, 양극화와 세대갈등의 완화 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바, 공동 비전을 찾기 위한 정책대화를 추진한다.

2) 한일 양국은 공통된 사회경제문제에 대해 양국 학자 및 연구기관에 의한 공동연구 및 공동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여,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 한일 청년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활용하여, 청년 인재의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도록 상대국 언어의 학습기회 및 장기체재가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8.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에 의존해온 한일 양국은 최근 급증하는 신보호주의와 무역마찰에 공동 대처하며 자유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 한일 양국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취해 신보호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 자유무역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독려한다.

2)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며, 한일 양국은 RCEP, 한일 FTA, 한중일 FTA의 조기체결에 협력한다.

3) 한일 양국은 무역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과 에너지산업 및 물류분야의 협력,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일 기업 공동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한일포럼 회장

유명환

일한포럼 회장

이오키베 마코토